

시마바라반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리플릿: 개요

‘국립공원’과 ‘지질공원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
시마바라반도는 2개의 다르지만 관련이 깊은 공원이 소재하는 흔치 않은 곳입니다. 그 중 하나는 ‘운젠 아마쿠사 국립공원’으로 1934년 일본에서 최초로 지정된 3곳의 국립공원 중 한 곳입니다. 운젠 화산군의 생태학적·문화적·역사적 자원과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아마쿠사 제도의 해안선을 보호하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.

또 하나인 ‘시마바라반도 지질공원(설립 시 명칭: 현: 시마바라반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)’은 일본 최초의 지질공원으로서 2008년에 설립되었습니다. 지질공원은 국립공원과 많이 비슷하지만, 유네스코에 의해 지정되며 사람과 지구를 위해 국제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장소의 보호가 목적입니다. 2023년 현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48개국에 195곳이 있습니다. 그 중 10곳이 일본에 있습니다.

운젠다케라는 이름의 산이 있나요?

아니요. 운젠다케는 하나의 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마바라반도 중앙부에 있는 많은 산들(‘-야마’, ‘-산’, ‘-잔’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음)과 높고 험준한 산(‘-다케’)의 총칭입니다. 운젠다케에는 후젠다케(1,359m), 헤이세이신잔(1,483m), 야타케(971m)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